

'3無 축구' 완성해

〈실점·승부차기·경우의 수〉

3마리 토끼 잡는다

〈애틀랜틱컵 초청·FIFA 랭킹 상승〉

한국-호주 31일 오후 6시 아시안컵 결승전



지긋지긋한 경우의 수·승부차기 '악연'

이번엔 무실점 5연승으로 자신감 충만

2015 호주 아시안컵 결승에 올라 55년 만의 우승을 노리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지금까지 '세 가지'가 없었다. 바로 실점·승부차기·경우의 수가 없는 '3무(無) 축구'였다.

한국 축구는 역대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을 비롯해 아시안컵에서 항상 '실점·승부차기·경우의 수'의 세 가지 상황에 곤란을 겪어왔다.

지난해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조별리그부터 실점 행진이 펼쳐졌고, 알제리아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는 무려 4골이나 내줬다. 조별리그 1, 2차전에서 1무1패를 거둔 한국은 벨기에와의 3차전의 다양한 '경우의 수' 앞에서 최악의 상황인 패배를 맞으며 조기 귀국의 쓴 맛을 봤다.

역대 아시안컵에서는 승부차기의 부담감을 지긋지긋하게 맛보기도 했다.

2011년 아시안컵에서는 4강에서 일본을 만나 승부차기 끝에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2007년 아시안컵에서는 8강, 4강, 3-4위전까지 무려 3경기 연속 승부차기를 펼치는 진풍경도 연출했다. 마지막 결승 진출이었던 1988년 대회에서는 결승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승부차기 끝에 패해 우승을 눈앞에서 놓쳤다.

고질적인 수비 불안도 태극전사들을 따라다니는 수석이었다.

한국은 1996년 아시안컵 8강전에서 이란에 2-6의 참패를 당했다. 한국의 아시안컵 역대 한 경기 최다 실점 장면이었다. 특히 한국은 당시 이란의 최고 골잡이 알리 다에이에게 무려 4골을 빼앗기는 굴욕까지 맛봤다. 1996년 대회에서 한국은 역대 아시안컵 최다 실점(11실

점)을 기록했다.

국제 대회에 나설 때마다 '실점·승부차기·경우의 수'의 굴레에서 고민했던 한국 축구가 2015 아시안컵에서 대반전에 성공했다.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1-0으로 마친 한국은 8강전(2-0승), 4강전(2-0승)까지 내리 5연승을 거두고 27년 만에 결승 진출에 성공하며 55년 만의 왕좌 탈환에 도전하게 됐다.

올리 슈틸리케 감독은 부임한 지 4개월 만에 대표팀의 체질을 바꿔놓으면서 지난해 월드컵 조기 탈락으로 추락한 태극전사들의 자신감을 끌어올렸다. 조별리그를 3연승으로 마치면서 '경우의 수' 걱정을 덜어낸 슈틸리케는 8강전 연장혈투에서 손흥민(레버쿠젠)의 연속골로 무승부 위기를 넘겼고, 4강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일찌감치 골을 넣으며 승리를 따내 승부차기의 걱정을 날렸다.

특히 5경기 동안 무실점 수비를 펼친 것도 고무적이다. 집중력이 흔들리며 위태로운 상황을 여러 차례 연출하기도 했지만 골키퍼 김진현(세레소 오사카)의 슈퍼 세이브와 수비진들의 몸을 날린 '육탄 방어'로 실점을 막아냈다.

이제 남은 것은 31일 오후 6시 개최국 호주와 치르는 결승전뿐이다. 슈틸리케호가 4강까지 이어온 '3무 축구'를 끝까지 완성해 우승의 축배를 들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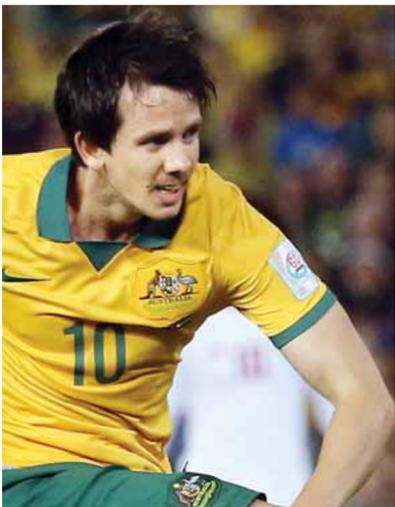
▶ 손흥민



어제의 '동지'...오늘의 '적'

손흥민-호주 크루스 獨 레버쿠젠서 한솥밥...결승전서 자존심 대결

▼ 크루스



동료에서 적으로 만난 손흥민(23)과 로비 크루스(27·이상 레버쿠젠)의 자존심 대결이 심상치 않다.

손흥민과 크루스는 오는 31일 호주 시드니의 스타디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열리는 한국과 호주의 아시안컵 축구대회 결승전에 이번이 없는 한 양국 대표로 선발 출격한다.

두 공격수는 독일 분데스리가의 레버쿠젠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다. 두 선수는 왼쪽 날개 공격수로서 포지션까지 똑같다. 주전 자리를 놓고 일상적으로 다툰 까닭에 동료가 아니라 무대와 팀을 옮겨 적으로 다시 만났다는 시각도 있다.

둘의 균형은 클럽에서 깨진 지 이미 오래였다. 손흥민은 올 시즌 전반기에 26경기에 선발로 나와 11골을 터뜨렸으나 크루스는 7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쳤다. 로저 슈미트 레버쿠젠 감독은 크루스보다 손흥민에게 강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

크루스는 2013년 여름 뉘른베르크에서 레버쿠젠으로 이동했다. 그는 명문 구단의 킬러가 되기를 소망했으나 같은 시기에 영입된 손흥민의

경기를 벤치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한국과 호주는 지난 17일 조별리그 3차전에서 맞붙었다. 그러나 손흥민은 감기 몸살 후유증 때문에 후반에 투입됐고 컨디션도 썩 좋지 않았다. 크루스도 8강 진출이 확정돼 체력을 안배하는 차원에서 후반에 그라운드로 나왔다.

결승전은 조별리그 3차전과 완전히 다른 양상이 예상된다. 손흥민은 감기 몸살에서 완전히 벗어나 지난 22일 우즈베키스탄과의 8강전에서 두 골을 터뜨리며 공격수로서 감각도 조율했다.

크루스도 최전방 공격수 팀 케이힐, 오른쪽 윙어 매튜 레키 등 정예진과 함께 처음부터 경기를 시작할 전망이다. 크루스는 27일 아랍에미리트와의 준결승전에서 좌우 측면을 활발히 오가며 레키와 함께 꾸준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등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다.

손흥민은 이번 대회에서 3차례 선발 출장한 것을 포함해 4경기에 나와 341분을 뛰며 두 골을 터뜨렸다. 크루스는 4차례 선발을 포함해 5경기에 나와 한 골을 넣었다. /연합뉴스



박태환, 다음달 도핑 청문회

FINA, 스위스 로잔서 28일...수영연맹, 병원 과실 알리는데 총력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수영스타 박태환(26)의 징계 여부와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국제수영연맹(FINA) 청문회가 다음달 27일 열린다.

대한수영연맹은 28일 "전날 FINA가 오는 2월 27일 오전 8시30분(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박태환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로잔에는 FINA 사무국이 있다. 다만 FINA는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추후 확정해 알려 주겠다고 덧붙였다. FINA는 청문회 개최 일정을 박태환 측에는 먼저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에는 박태환과 그의 법률대리인을 비롯해 대한수영연맹의 이기흥 회장과 정일정 전무 등이 참석해 이번 파문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알리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두고 국

내에서 마무리훈련을 하던 지난해 9월 초에 실시한 FINA의 도핑 테스트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로 근육강화제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박태환 측은 "아시안게임 약 2개월 전에 국내 한 병원에서 척추교정치료와 건강관리를 받으면서 맞은 주사에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해당 병원을 고소했다. 검찰도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 측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도핑에 적발된 선수의 면책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세계도핑방지규약에 명시돼 있어 박태환에 대한 FINA의 징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합뉴스